법화종 중앙종회의장에 성운 스님

수석부의장 지관, 부의장 서안 스님



(사)대한불교법화종 제19대 중앙종회의장에 성운 스님(강선사 주지 · 사진)이 선출됐다.

법화종 중앙종회는 3월 14일 서울 삼선동 총무원 청사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19대 의장단 선출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종회의원 9명이 투표에 참여, 기호1번 성운 스님이 5표로 중앙종회의장에 선출됐다. 기호2번 법원 스님은 4표를 획득했다. 또한 수석부의장엔 지관 스님, 부의장엔 서안 스님이 임명됐다.

성운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중앙종회가 제 역할을 못해 종도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다"며 "종단 초석을 다시 놓는다는 심정으로 종헌 · 종법 제개정과 중앙종무기관 및 교구종무원 감사 등 종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운 스님은 이어 "그동안 중앙종회와 교구종회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생산적인 종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회의원들의 입법과 상임위 활동에 불편함 없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화종 제19대 중앙종회의장 성운 스님은 강원사대부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서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다.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춘천시 제7대 시의회 의원 및 산업위원장을 역임했다. 법화종서는 총무부장 · 사회부장 · 법계고시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전북불교대학 30주년 특별법회

3월 30일, 강건기 초대학장 초청 특강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개교 30주년을 맞아 전북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강건기 초대 학장을 초청해 30주년을 기념했다.

사단법인 부처님세상 부설 전북불교대학은 3월 31일 전북불교대학 4층 큰법당에서 개교 30주년 기념식과 강건기 초대학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건기 초대학장은 특강을 통해 "마음을 깨치면 부처고 그렇지 못하면 중생이다. 중생과 부처는 마음에 달렸다"며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경계를 세울 때 나와 남이 동체가 아닌 별체가 되니 구별을 지우고 동체자비를 실현할 때 진정한 부처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불교대학은 전북불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8년 3월 31일 문을 열어 3383명의 졸업생과 471명의 전법사를 배출하는 등 불교전문교육기관이자 재가불자의 교육도량으로 발돋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식문화 맛과 멋 청소년에게 전달"

Interview

한식진흥원 제5대 이사장 선재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패스트푸드 길들여진 청소년

한식에 담긴 지혜 · 정신 알려

건강한 식문화 발달에 앞장

"요즘 청소년들이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선호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전통문화인 한식이 고루한 것이라는 인식도 생겨났죠. 하지만 한식은 우리민족의 맛과 멋을 책임져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청소년들이 한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식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식진흥원 제5대 이사장에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이 4월 2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 한식진흥원 이사장을 스님이 맡은 첫 사례로, 사찰음식과 한식문화의 발전을 기대하는 시선이 많다.

사찰음식 명장1호인 선재 스님은 "그간 이사장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연락을 수차례 받았지만 많이 거절했다. 하지만 한식을 제대로 바르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장직을 맡게 됐다"며 "사찰음식과 한식이 일정부분 서로 추구하는 게 맞아 떨어진다. 건강한 식문화 발달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재 스님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바른 한식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스님은 "흔히 동짓날 팥죽을 먹는다고 하면 액땜할 게 있다거나 그냥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하지만 동지는 겨울의 시작을 의미하고, 팥이 몸 안의 냉기를 몰아내준다"면서 "몸에 냉기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면역력이 높아진다. 이처럼 한식에는 건강을 위한 선조들의 정신과 그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담겨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재 스님은 오랫동안 사찰음식 강의를 해오며 대중에게 전한 생명존중사상이 한식문화와 어우러져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님은 "하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땅에서부터 물과 공기, 농부들의 긍지 등 수많은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대해선 안 된다"며 "자연과의 공존은 각박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정신적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재 스님은 끝으로 "한식진흥원을 중심으로 한식문화가 한류로 이어지고 국가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한식만의 발달이 아닌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사회에 알려 관련된 산업도 함께 진흥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재 스님은 1980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봉녕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가정교육과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미국 요리 사관학교로 불리는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프랑스 '르 코르동 블루', 이탈리아 미식대학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찰음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섰으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조계종 제1호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사찰음식문화센터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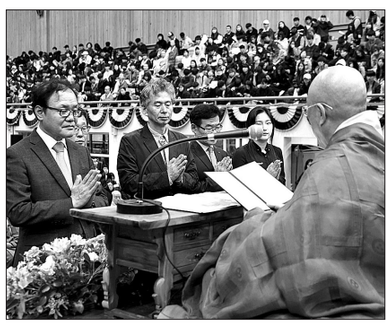
"수계,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

동국대 경주캠퍼스, 전 동국인 수계법회 봉행

동국대 경주캠퍼스 재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 전원이 부처님 제자가 되길 서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4월 4일 교내 문무관에서 재학생, 교직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일반신도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전 동국인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대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헌향 및 헌화, 청성(삼보를 청함), 전계사 등단, 청사(수계법사를 청함), 개도(깨우쳐 인도함), 참회, 연비의식, 귀의삼보, 선계상(계상을 설함), 계첩 수여, 정근, 발원문 봉독, 격려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전계사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갈마사에는 前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성효 스님, 교수사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법수 스님이 참여했다.

전계사를 맡은 자광 스님은 "계를 받는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자 영원한 극락세계로 가는 발판을 얻는 것"이라며 "수계를 받아 인격을 완성하는 것은 인생의 제2의 탄생과 같다"고 설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격려사에서 "우리학교에는 기숙사를 비롯한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포스터가 붙어 있다"며 "팔정도를 일상적으로 보고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계'란 불교에서 재가(在家)신도나 출가(出家)수행승의 구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한 서약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재학생 및 교직원 등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텝봉 스님 방한, 월서 스님 만나

천호월서재단 국제구호에 감사인사



한국을 방문한 캄보디아 승왕 텝봉 스님이 4월 5일 서울 봉국사서 캄보디아 구호에 앞장서는 천호월서재단 이사장 월서 스님과 환담을 나눴다. 앞서 천호월서재단은 캄보디아 불교대학에 컴퓨터를 기증하는 등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이 자리서 월서 스님은 텝봉 스님에게 '수복강녕(壽福康寧)' 글귀를 써서 선물했으며, 텝봉 스님은 대중을 위해 축원을 올렸다.

윤호섭 기자

광주 법륜사 가사불사 회향

스님 13명에게 신도들 가사공양



광주 태고종 법륜사(주지 월인)는 4월 1일 대웅전에서 '가사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스님들에게 새로 조성된 가사를 공양했다. 이날 회향법회는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으로 취임한 월인 스님, 호산 스님(前광주전남종무원장),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을 비롯한 광주전통불교영산회 스님 20여 명과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3명의 스님에게 가사가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자비의 쌀 전달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4월 3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사무소에 쌀 20kg 50포, 휴지 50팩을 전달했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노인에게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지암 · 혜운 · 경봉 · 덕운 · 보성 · 도암 · 민철 스님 등 종도스님들과 심재충 약목면사무소 부면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샘나 효모 밥죽순 콩단백 조직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 샘나]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